

# “금리 급상승… 은행권, 가계부실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  
“상환능력 기반한 여신심사 정착  
변동금리 축소 등 대출구조 개선을”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 이겨내도록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지원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에게 고금리로 부담을 겪는 기업과 차주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위한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인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며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상환능력 기반의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한편, 분할상환 대출 확대,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 등 대출구조 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상당 및 지원 등을 통해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용대출 119, 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은행장 간담회에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박종복 SC제일

은행장 등 17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연체와 부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권의 보다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건전한 고객 기반이 없이는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고객과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노력은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 원장은 은행장에게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개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부담을 경감하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해 달라”고 강조

했다. 이 원장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대내외 경기 둔화, 원자재가격 상승, 고금리 부담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행권이 만기연장·상환유예, 금리인하,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맞춤형 자체 지원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이 고금리 부담으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맞는 금리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마련·운영해 달라”며 “금융부담을 완화해 정상적인 경영을 유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대형 금융사고의 발생은 은행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롯데제과, 인도에 700억 투입 빙과공장 건립

하브모어 인수 후 첫번째 투자  
푸네시에 6만㎡ 규모 생산시설

롯데제과는 인도 자회사 하브모어(Havmor Ice Cream)에 5년간 45억 루피(약 7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2017년 12월 롯데제과가 하브모어를 100억 루피(인수 당시 약 1672억원)에 인수한 후 처음 단행하는 투자다.

롯데제과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인도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 푸네(Pune)시 MIDC(마하라슈트라 산업개발공사(Maharashtra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탈레가온에

6만㎡ 규모의 새로운 빙과 생산 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하브모어 인수 후 신규로 지어지는 첫번째 공장이자 기존 아마다바드(Ahmedabad), 파리다바드(Faridabad) 공장에 이은 세번째 공장이다. 새로 짓는 공장에는 각종 자동화 설비 등 한국의 선진 식품제조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하브모어는 지난 10년간 10배의 성장을 기록했다.

현재 인도 전체 28개 주 중 20개 이상의 주에서 강력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총 216개의 아이스크림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에도 두 자리 수 매출 신장을 이어가며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21년에는 ‘월드콘’을 출시하고, 2022년에는 ‘설레임’을 선보이는 등 롯데제과의 메가브랜드 상품도 도입 중이다.

롯데제과 최명립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인도는 롯데에게 중요한 시장이며, 인도에 한국의 제조 기술 기반의 아이스크림 공장을 짓게 돼 매우 기쁘다”며 “새로운 공장은 인도에서 브랜드 영역을 강화하고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설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될 듯

정부, 내일 해제여부 결정키로

정부가 오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마스크를 벗는 시점은 설 이후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20일 이후 꼬박 3년, 마스크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유행 정점을 지나면서 방

역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따른 결정이다.

이 장관은 “일 평균 확진자 수는 4만 2000명대로 3주 연속 줄어들었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39명으로 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은 68.5%로 다소 여유가 있으며, 감염 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도 61.2%로 당초 목표치(60%)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설 연휴 시작인 2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가능성은 낮다. 대면 접촉과 이동량이 증가하는 설 연휴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